2025학년도 1학기 문헌연구보고서

장수왕 재위 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고구려의 대중국 정책

이름	이단열
전공	한국역사학과
학번	20240234

장수왕 재위 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고구려의 대중국 정책

20240234 이단열

Ⅰ. 머리말
Ⅱ. 남북조 체제의 성립과 고구려의 외교적 대응
1. 장수왕 재위 초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
2. 북조 정세 변화와 고구려의 완충 지대 활용 전략
3. 북위의 화북 통일과 고구려의 현실주의 외교
4. 풍홍 사건으로 본 고구려의 대송 전략
Ⅲ. 맺음말

Ⅰ. 머리말

고구려사 연구에서 광개토대왕은 정복 군주로서의 위상이 확고하다. 그의 재위 기간 이루어진 대규모 영토 확장과 군사적 성과는 고구려 전성기의 출발점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광개토대왕이 39세의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서거했다는 사실은 고구려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시사한다. 그의 정복 사업은 분명 주목할 만한 업적이지만, 만약 안정적인 후계 구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고구려는 일시적 영토 확장에 그치고 내부 혼란과 쇠퇴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었다. 실제로 고대 국가에서 왕의 급작스러운 서거와 후계자 부재는 종종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곤 했다. 광개토대왕 사후 고구려의 정치적 안정성과 지속적 발전은 결코 자명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후계자의 정치적 역량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좌우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어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실질적으로 완성한 군주는 바로 그의 아들, 장수왕(재위 413~491)이다. 장수왕은 부왕으로부터 물려받은 광대한 영토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79년간 장기 집권하며, 한강 유역을 추가로 정복하는 등 영토를 더욱 확장하였다. 또한 중국의 남북조와 북방 유목제국인 유연(柔然) 등 주변 강국들과의 외교를 능숙하게 조율하여,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였다. 이러한 점에서 장수왕은 고구려 전성기의 '완성자'이자, 국가 체제의 안정과 발전을 이끈 주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의 통치 기간 이룩한 외교적 성과는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5세기 동북아시아는 기존의 국제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세력이 부상하던 격동의 시기였다. 중국에서는 남북조가 대립하며 혼란이 지속되었고, 북방에서는 유목 민족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고구려는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군사적 역량뿐 아니라 외교적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외부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에 효과적으로 적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장수왕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대외정책과 외교적 성과, 그 역사적 의미를 다각도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구려가 동북아시아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장수왕의 리더십이 국가 발전에 미친 영향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Ⅱ. 남북조 체제의 성립과 고구려의 대응

1. 장수왕 재위 초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

광개토대왕이 412년에 사망한 후, 그의 아들 장수왕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정복 군주의 후계자로서 장수왕이 짊어진 정치적 책임은 막중했다. 고구려는 소수림왕과 고국양왕 대를 거치며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고, 이를 토대로 광개토대왕은 대규모의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복은 단순히 전쟁의 승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방대한 후속 과제를 동반한다. 정복 지역의 민심을 안정시키고 반감을 잠재우는 일, 자국 내 인적·물적 자원을 복구하고 재정비하는 일, 그리고 제3국의 개입이나 견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일 등이 그에 해당한다. 특히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을 통합해야 했던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과제의 중요성이 더욱 컸다.

한 국가가 군사적 정복을 통해 영토와 인구를 확장하면, 인접국들은 이를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여 견제하거나, 때로는 연합하여 침공을 감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복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치와 외치의 균형 잡힌 대응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외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효과적인 외교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국가 내부의 통합과 재정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

경이 조성된다. 이러한 점에서 장수왕이 외교에 중점을 둔 것은 고구려의 국력과 위상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다.

장수왕이 외교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5세기 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였다. 기존의 강국들이 쇠퇴하거나 멸망하고, 북위·유연 등 새로운 세력이 부상함에 따라, 고구려의 외교 정책 역시 기존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새로운 세력들은 국가의 성격, 지배층의 구성, 국력 등에서 이전과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효과적인 외교 교섭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긴장이나 전쟁이 발생할 위험이 컸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는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이 되었으며, 장수왕은 이러한 국제 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고구려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었다.

실제로 5세기 전반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급격히 재편되었다. 동진(東晉)의 실권자였던 유유(劉裕)는 420년에 송(宋)을 건국하였고, 439년에는 북위(北魏)가 북중국을 통일하였다. 몽골초원 지역에서는 유연(柔然)이 점차 강력한 유목제국으로 성장하였으며, 동방의 고구려와 서방의 토욕혼(吐谷渾)은 각기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해 나갔다. 이처럼 수많은 국가들이 난립하며 흥망성쇠를 거듭하던 5호 16국 시대가 막을 내리고, 남조와 북조, 그리고 유연 등 강대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자리를 잡았다.

고구려는 420년 송 건국 직후, 장수왕이 '사지절(使持節)·도독영주제군사(都督營州諸軍事)·정동대장군(征東大將軍)·고구려왕(高句麗王)·낙랑공(樂浪公)'으로 책봉되었고, 422년에는 '산기상시(散騎常侍)'와 '도독평주제군사(都督平州諸軍事)'의 직책도 추가로 부여받았으며, 이후 고구려는 423년 3월과 424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송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이에 송 역시 424년에 알자(謁者) 주소백(朱邵伯) 등을 고구려에 파견하였다.[1)]

북위가 본격적인 동진에 나선 것은 432년이므로 이 시기의 고구려-송 관계를 북위에 대한 견제로 보기는 어렵다. 백제와 외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견해도 존재하나, 송은 이들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으므로 견제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진 시절의 외교관계를 계승했다고 보는 설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2)]

송이 고구려와 관계를 밀접히 하려 한 배경에는 산동 반도에 대한 지배도 한몫했다. 이 지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 일찍부터 한반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교두보였다. 한반도에서 성장했던 수많은 정치세력들은 산둥을 거점으로 하는 해로를 통해 선진 문화를 수용하였다.[3)]

당대 항해기술의 한계로 항해는 거의 해안선을 따라가는 연안 항해가 중심이었다. 그런데 산둥반도의 경우 중국에서 한반도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어, 요동 반도와 특히 가깝다. 이는 산둥반도를 점유한 세력은 한반도, 특히 고구려와 교통하기 편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개토대왕 시기 중국에서는 전연에서 갈라져 나온 남연이 이곳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족 왕조인 동진과 송은 5호에게 빼앗긴 북중국의 수복을 원하고 있었고 수차례의 북벌을 단행했다. 특히 410년과 417년에 동진 말 재상이자 송의 건국자인 유유는 각각 남연과 후진을 정벌하여 동진의 영토를 황하~장안으로 확장시켰다.[4)]

---

1) 김철민, 2016,『高句麗 長壽王代의 對宋外交와 그 背景』,『韓國史學報』, 63, 171쪽
2) 여호규, 2022,『5세기 초·중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고구려의 외교 정책』, 역사와 현실, 124, 119쪽
3) 백다해, 2016,『5세기 국제정세와 장수왕대 대송관계(對宋關係)의 성격』, 역사와 현실, 102, 223쪽
4) 백다해, 2016, 앞 논문 226쪽

이 전쟁으로 동진은 산동 지역을 수복했으며, 이 강역은 송나라에도 그대로 계승된다.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시기부터 산둥 지역을 지배하는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한 만큼 이러한 외교 기조는 장수왕 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장수왕이 동진-송에 사신을 보내 외교적 교섭을 진행하고자 한 배경에는 산둥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고구려가 동아시아 해로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렇게 연속성 있는 외교정책은 고구려의 일관성과 장기적 안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고구려와 송의 외교는 양국 모두의 정치적 필요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했다. 우선 송의 경우, 황제의 대내외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목적이 컸다. 송나라를 포함한 남조 정권들은 구조적으로 황권(皇權)이 신권(臣權)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근본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강남 지역은 아직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앙 정부의 행정력이 지방까지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지방 호족 세력의 위세가 강화되었고, 이는 중앙 권력의 상대적 약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 황제가 급속히 성장한 고구려로부터 조공과 칭신(稱臣)을 받을 수 있다면, 황제의 권위와 왕조의 정통성이 내외적으로 크게 제고될 수 있었다. 이는 남조 정권이 이민족 국가와의 외교를 통해 왕조의 정통성과 황제의 위신을 강화하려 했던 일련의 시도와 맥을 같이 한다.

고구려 또한 자국의 국익에 따라 대송 외교에 적극적이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고구려는 산둥(山東) 지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 지역을 둘러싼 북위와 송 간의 군사적 긴장 또한 면밀히 주시하였다. 이는 산둥 지역을 점유한 세력의 성격에 따라 고구려가 입게 되는 외교적·군사적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산둥이 고구려와 중국 본토를 연결하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에서, 고구려는 산둥의 통제권을 가진 국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직결된다고 판단했다.[5)]

이와 함께, 장수왕이 추진한 평양 천도 역시 외교적 안정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평양 천도는 광개토대왕 시기부터 준비되었으나, 실제 실행은 장수왕 재위 16년인 427년에 이루어졌다. 천도는 단순히 국왕의 거처를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행정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하는 대규모 국가사업이었다. 새로운 수도에 걸맞은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과 노동력이 필요했으며, 동시에 구 수도(국내성)에 기반한 기득권층의 반발을 조율하는 정치적 과정도 필연적으로 수반되었다. 이렇듯 대규모 내정 개편이 진행되는 시점에 외부로부터의 침공이나 간섭이 발생한다면, 국가적 위기로 직결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장수왕은 잦은 전쟁으로 불확실성을 더해가는 대륙 정세에 관여하기보다는 내정에 힘을 기울이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6)]

따라서 국내의 안정을 확보하고 대외 방비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중국발(發) 해상 세력의 거점인 산둥 지역의 정세는 고구려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423년과 424년 고구려가 송에 사신을 파견한 것도 바로 이 산둥 일대의 정세를 탐색하고, 해당 지역의 귀속 상황을 파악하려는 외교 전략의 일환이었다.[7)] 이러한 외교적 움직임은 단순한 친선 교류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안보와 국익을 위한 정보수집 및 정세 판단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

5) 백다해, 2016, 앞 논문, 229쪽
6) 김진한, 2018,『5世紀 高句麗의 對宋外交 再檢討』,『역사학보』, 237, 35쪽
7) 백다해, 2016, 앞 논문, 230쪽

결과적으로 고구려와 송은 서로의 정치적, 군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적극적으로 외교 교섭을 추진하였고, 이는 양국 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고구려는 송과의 외교를 통해 평양 천도와 같은 대내적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외적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송 역시 고구려와의 교섭을 통해 황제권 강화와 국경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수왕 초 고구려와 남조 간의 외교 교섭은 상호 정치적 필요와 정세에 기반한 실리 외교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단일한 중심축이 아닌, 다원적인 권력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각국은 중원의 어느 한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동시에 여러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자국의 실리와 입지를 강화해 나갔다. 고구려 역시 예외가 아니었으며, 남조뿐만 아니라 북조의 여러 국가들과도 조공과 책봉의 외교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다변적 외교 전략은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자주성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2. 북조 정세 변화와 고구려의 완충 지대 활용 전략

남조와 북조는 국체(國體)와 통치 기반에서 본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북조 국가들은 그 기원을 유목민족에서 찾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지역의 인구 다수는 한족 출신의 정주민이었다. 유목민 정권들은 정주민을 장기적으로 통치한 경험이 부족했으며, 유목 문화와 한족 문화라는 이질적인 요소의 공존은 국가 운영에 있어 다양한 시행착오를 수반하였다. 더불어 북조의 계통을 이루던 5호(五胡) 세력은 전반적으로 호전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고,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북조에서는 안정된 중앙집권 국가가 형성되기 어려웠고, 크고 작은 국가들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군웅할거의 양상이 전개되었다. 반면 남조는 비록 내부적인 결함과 한계를 안고 있었지만, 비교적 일원적인 통치 체계를 갖춘 단일 국가 체제로 유지되었다.

그중 고구려와 주로 충돌한 국가는 모용선비의 전연(前燕)과 후연(後燕)이었다. 전통적으로 인구 밀집 지역인 화북 평원과 부유한 산둥 지방을 지배한 두 국가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인접한 고구려에 군사적 침공을 감행했다. 이들 중 후연은 광개토대왕 시기 고구려를 공격해 요동성과 목저성을 공격하여 함락 직전까지 몰아붙였으나, 최종적으로 고구려에게 패하였다. 이후 407년 후연이 멸망하고 북연이 건국되었다. 북연은 후연에 비해 국력이 약했다. 화북 평원 지역을 북위(北魏)에게 빼앗기고, 산둥 지역은 후연 시기에 분리되어 남연(南燕)의 지배하에 놓이면서 통제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개토대왕은 408년 북연, 남연과 모두 외교관계를 수립했는데, 이는 단순한 우호 외교라기보다는 당시 화북지역의 패자로서 동으로 그 세력을 확대하고 있던 탁발선비의 북위를 고려해서였다. 북연과 남연을 북위에 대한 방파제로 여겼던 것이다.[8] 이처럼 고구려는 화북의 복잡한 정세와 세력 균형을 면밀히 파악하여, 각국과의 외교관계를 유연하게 조정하였다. 이러한 다변적 외교 전략은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의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남연은 동진 말기의 실권자 유유(劉裕)에 의해 멸망당했고, 북연은 세력을 확장하던 북위에게 점점 압도당하고 있었다. 북위와 고구려 사이의 완충지대가 서서히 소실되어간 것이다. 이는 양국 간의 외교 및 군사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

8) 노태돈, 2012,『광개토왕대의 정복활동과 고구려 세력권의 구성』, 한국고대사연구, 67, 14쪽

물론 장수왕 즉위 초 420년대에 북위와 고구려가 직접적으로 충돌한 것은 아니었다. 약소국이긴 해도 북연의 존재가 고구려와 북위, 두 강대국이 직접 국경을 맞대는 것을 막았으며, 결정적으로 북위는 적국이 너무 많았다. 남방에서는 유유(劉裕)의 송(宋)이 북진정책을 추진했으며, 관중 지역의 북하(北夏), 감숙 지역의 북량(北凉) 등의 존재로 화북은 아직 통일되지 못했으며, 북방의 몽골초원에서는 선비계통의 유연(柔然)이, 서쪽 청해 지역에서는 마찬가지로 선비족의 토욕혼(吐谷渾)이 거대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즉, 주변에 적성 국가들이나 잠재적인 정복 대상국들이 난립한 상황에서 북위가 고구려에 주의를 집중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가운데, 425년 고구려는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고구려가 사신을 보낸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존재한다. 하나는 백제를 견제하기 위한 외교적 조치였다는 견해이고,[9] 또 다른 해석은 백제를 중시하기 시작한 송과의 거리두기 전략이라는 것이다.[10] 또한, 고구려가 백제나 송 등 특정 국가의 외교적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 북위와의 외교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11] 실제로 고구려는 420년대 송과의 외교 교섭에 적극적이었으며, 북위에 사신을 파견한 것도 이러한 다변적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420년대 초 남북조 간의 전쟁 상황과 북위와 송간 전세가 역전된 시점을 고려할 때, 이 사절 파견은 단순한 외교 교섭 차원을 넘어, 고구려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자국의 안보와 외교적 입지를 다각도로 모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420년대 초까지 남북조 체제는 송이 주도하고 있었다. 송 태조 유유(劉裕)는 410년대에 적극적인 북방 공세를 펼쳐 산둥, 화남, 관중 지역을 정복하며 강력한 위세를 떨쳤다. 이 시기 송은 북방의 여러 국가들을 압박하며 남북조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으나, 420년대에 들어 상황이 급변하였다. 남조에서는 유유가 422년에 사망하였고, 그로 인한 정치적 공백과 혼란이 발생하였다. 한편, 전열을 재정비한 북위가 본격적으로 남방에 대한 공세를 개시하면서 송은 산둥반도의 일부 지역과 낙양(洛陽) 일대를 잃고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이 시기 북위는 외적의 침입(유연의 공격)으로, 송은 유유 사후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양측 모두 전면적인 전쟁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고구려는 423년과 424년에 송에 사신을 파견했고, 425년에는 북위를 방문하였다. 고구려가 425년에 북위에 사신을 파견한 주요 목적은 단순한 외교 접촉에 그치지 않고, 국제정세의 급변 속에서 북위의 동향을 탐지하고 이에 대비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12] 즉, 고구려는 남북조와 북방 유목 세력 간의 역동적인 세력 균형을 면밀히 주시하며, 변화하는 외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3. 북위의 화북 통일과 고구려의 현실주의 외교

북위의 태무제는 본격적인 423년 즉위한 이후 적극적인 정복 전쟁을 펼쳤다. 425년 10월 유연(柔然)의 본거지를 소탕하여 초원의 침공을 저지한 후 서방의 대하(大夏) 정벌을 추진했다. 426년 북위는 대하를 상대로 탐색전을 전개하였으며, 427년 북위는 마침내 대하의 수도인 통만성(統萬城)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 후 429년에는 재차 유연 원정에 나서 유연의 재침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뒤 이듬해인 430년에 대하

9) 박진숙, 2004, 「장수왕대 고구려의 대북위외교와 백제」, 『한국고대사연구』 36, 201~203쪽
10) 김철민, 2016, 「고구려 장수왕대의 대송외교와 그 배경」, 『한국사학보』 63, 175~176쪽
11) 여호규, 2022, 앞 논문, 124~125쪽
12) 여호규, 2022, 앞 논문, 126쪽

의 잔여 세력을 소탕하여 서방의 위협을 제거하였다. 이후 관중을 장악한 뒤 송에 북진을 저지, 고도(古都) 낙양(洛陽)을 점령하여 하남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했다. 이로써 5호16국 가운데 동방의 북연과 서방의 북량만 남고, 북위 압도적 우위의 국제정세가 조성되었다.[13)]

비록 북중국 전체가 완전히 평정된 것은 아니었으나, 북위의 세력 우위는 주변국들도 인정하는 바였고, 각국은 외교사절을 파견하여 북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432년에 이르러 북위는 본격적으로 북연 원정에 착수하였으며, 이는 고구려에게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북연이 멸망할 경우, 고구려와 북위 사이의 마지막 완충 지대가 사라지게 되고, 결국 고구려는 당대 최강국인 북위와 직접 국경을 접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전의 오호(五胡) 국가들은 화북 전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구려를 일시적으로 압박할 수는 있었으나 궁극적으로 멸망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북위는 이미 화북에서 더 이상 경쟁자가 없는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는 고구려로 하여금 단순히 만주와 한반도 내의 패권 다툼을 넘어, 화북 전체의 국력을 상대해야 하는 잠재적 위기에 직면하게 하였다. 강남 지역의 생산력이 화북을 초월한 것은 송나라 이후의 일이었으며, 중국 전통의 정치·경제적 중심지는 오랫동안 화북에 자리잡고 있었다는 점에서, 북위의 국력은 송과 비교해 훨씬 우위에 있었다. 따라서 고구려로서는 북위의 북연 공격을 저지하거나, 최소한 외교 교섭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432년 이후 북위 태무제가 일관되게 북연에 대해 고압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으며, 434년에는 본격적으로 북연 정벌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435년 6월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기 전까지 별다른 외교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14)]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고구려는 420년대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활발한 사신 파견을 통해 정보수집과 외교 교섭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당시 교섭의 주된 쟁점이 육로가 아닌 해상 요충지인 산둥반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을 펼친 바 있다. 따라서 고구려가 북연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국내적 요인이 고구려의 대외 개입을 제약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427년, 고구려는 평양으로 천도하였으며, 이는 국가 전체의 체제를 재정비하는 중대한 사업이었기에, 섣불리 대외정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고구려의 대외정책은 단순히 외부 정세에만 좌우된 것이 아니라, 내부 정치·사회적 변화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평양 천도와 같은 대규모 내정 개편 시기에는 외교적 신중함이 더욱 요구되었으며, 이는 고구려가 한동안 북위와의 외교적 접촉을 자제한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연의 멸망이 임박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고구려는 마침내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그 시점은 이미 너무 늦은 때였다. 고구려 사신이 북위의 수도 평성(平城)에 도착한 것은 435년이었는데, 북위의 북연 정벌군이 출정한 것과 같은 해였다. 이처럼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고구려 사신들이 북위의 군사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따라서 이 사절단의 목적은 북위의 정벌을 저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

13) 여호규, 2022 앞 논문, 128쪽
14) 여호규, 2022, 앞 논문, 130쪽

이 시기 고구려는 북위 황제의 휘(諱)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북위의 국가적 권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외교적 신호로 해석된다.[15] 이에 대해 태무제는 매우 흡족해하며 고구려 장수왕에게 다음과 같은 작호를 내렸다. 즉, 정동장군(征東將軍), 요해제군사(遼海諸軍事) 도독, 동이중랑장(東夷中郎將) 영호(領護), 요동군개국공(遼東郡開國公)의 봉작에 더하여 고구려왕(高句麗王)으로 책봉하였다.[16]

이러한 외교적 행보는 고구려가 국제정세의 대세를 명확히 인식하는 한편, 대외적인 정보 파악에도 관심을 기울였음을 시사한다. 당시 여러 국가의 사신들이 북위로 모여들었으며, 자연히 다양한 정보들도 북위로 집결되었다.[17] 따라서, 평양 천도 등의 내부 사정으로 외교를 사실상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고구려는 추후 전개해 나갈 외교를 위해 정세를 파악하고, 정보를 얻고자, 북위에 주목했다.[18]

이처럼 고구려는 국제정세의 흐름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실리적이고 유연한 외교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자국의 생존과 안정을 도모하였다. 이는 장수왕 대 고구려 외교의 현실주의적 성격과 변화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의 능동적 대응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고구려는 북위의 화북 통일 이전에도 자신과 인접한 전연(前燕)•후연(後燕) 등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서쪽 변경을 안정시켜 남진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원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도 하는 등, 단순한 외교적 예속을 넘어선 실리적이고 전략적인 조치였다. 고구려는 북위와의 외교관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여, 4세기 중반 이래 중원왕조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경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또한 고구려는 단일한 외교 노선에 머무르지 않고, 북위와 대립하는 유연(柔然)이나 남조(南朝) 등과도 외교적 접촉을 시도함으로써, 북위의 팽창을 견제하고 다극적 외교를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연의 멸망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후 북연 황제 풍홍(馮弘)은 북위에도 사신을 보내 태자를 입조시키겠다는, 사실상의 항복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북연의 멸망만을 바라고 있었던 태무제는 오히려 고구려를 포함한 주변국들에게 북연을 돕지 말 것을 경고하는 서신을 보냈다. 북위가 이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자 고구려의 선택지는 급격히 좁아졌다. 외교적 수단을 통한 북위 견제의 여지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 시점에서 고구려가 할 수 있는 일은 망명 의사를 밝힌 풍홍과의 협력을 통해 북위의 동진을 저지하는 것[19] 뿐이었다.

만약 북위가 순조롭게 북연을 멸망시킨다면, 북위의 다음 공격 목표가 고구려로 향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이다.[20] 결국 436년 북위가 북연의 요충지 백랑성(白狼城)을 공격하여 점령하자 장수왕은 장수 갈로맹광(蓋蘆孟光)으로 하여금 2만[21] 군사를 이끌고 북연의 수도 화룡성(和龍城)으로 가서 풍홍을 구하게 했다.[22] 이때 고구려군은 화룡성을 약탈하고 불을 질러 파괴한 뒤 풍흥과 지배층, 수도의 백성들을

15) 여호규, 2022, 앞 논문, 132쪽
16) 정동준, 2023,『북위와 고구려의 사례를 통해 본 책봉의 의미』, 한국사연구, 202, 41쪽
17) 백다해, 2023,『'북연 집단'의 이동을 통해 본 430년대 고구려 외교정책』,『선사와 고대』, 73, 85쪽
18) 백다해, 2023, 앞 논문, 85쪽
19) 여호규, 2022 앞 논문, 134쪽
20) 여호규, 2022 앞 논문, 134쪽
21)『삼국사기』권 제18, 고구려 본기 제6, 장수왕에는 '무리 수 만을 거느리고'라고 서술되어 있으나, 여호규, 2022「5세기 초·중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고구려의 외교정책」역사와 현실, 124, 134쪽 에서는 '2만 대군을 거느리고'라 서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2만으로 서술

이끌고 고구려로 귀환했다. 이 소식을 들은 태무제는 대로하여 고구려에 풍홍을 압송하라고 강요한 다음, 고구려가 이를 거부하자 436년 9월에 고구려 정벌 방침을 내비쳤다.[23]

결과적으로 태무제는 고구려에 대한 정벌을 단행하지 못하고 이를 포기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북위의 최우선 국정 과제가 화북(華北) 및 중원의 완전한 통일에 있었기 때문이다.[24] 당시 감숙성 일대에는 여전히 북량(北涼)이 존속하고 있었으며, 남방에서는 비록 산둥반도 쟁탈전에서는 패배하였지만,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는 송(宋)이 여전히 건재하였다. 북방의 경우, 몽골초원을 장악하고 있던 유연(柔然)은 앞선 북위 정벌 이후 신속(臣屬)하였지만, 유목 민족의 특성상 언제 다시 배신하고 침략을 감행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내외 정세가 복잡한 가운데, 국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이지만 절대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고구려와의 전쟁은 섣불리 시도하기 어려운, 고위험의 모험주의적 원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원정의 실질적 목적이었던 북연의 영토는 이미 온전히 북위의 통제하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전쟁을 원하지 않던 것은 고구려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전쟁으로 치닫지는 않았지만, 북위가 확실하게 침공 의사를 표방했던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여기에 한반도 남부의 국가들도 고구려에는 눈엣가시였다. 비록 장수왕이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한 것은, 450년대 이후이기는 하나 427년 평양 천도 이후부터 백제와는 소규모 교전을 벌이던 만큼[25] 고구려는 북위와의 충돌 가능성과 더불어 양면 전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양국의 현실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고구려는 436년부터 북위에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화평을 도모하였다. 북위 또한 고구려와의 충돌을 피하고 국경 대치를 최소화하고자 이를 수용하였다.

4. 풍홍 사건으로 본 고구려의 대송 전략

이렇게 북위와 고구려 사이에는 긴장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으나, 송(宋)과의 관계에서는 위기가 고조되었다. 그 원인은 고구려로 망명한 북연 황제 풍홍(馮弘)이었다. 풍홍은 고구려에 망명한 이후 일정 기간 평안히 지냈으나, 점차 자신의 대우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의 불만이 폭발한 것은, 438년 풍홍이 장수왕으로부터 '용성왕(龍城王) 풍군(馮君)'이라고 하대당한 사건에서였다.[26] 비록 풍홍이 망국의 군주이자 고구려에 의탁한 망명객 신분임을 감안하더라도, 한때 중원 제국의 황제였던 그에게 일개 번왕(藩王) 수준으로 격하되어 호칭된 점은 그 자신으로서는 상당히 모멸적으로 들렸을 것이다. 물론 장수왕과 고구려 입장에서 풍홍의 감정을 일일이 배려할 필요는 없었으나, 이 사건은 훗날 풍홍이 송에 망명할 결심을 품게 된 계기가 되었다.

장수왕은 처음에 풍홍의 거처를 평곽(平郭)에 마련해 주었으나, 이후 그를 북풍(北豊)으로 이주시켰다. 그러나 풍홍은 여전히 고구려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불손한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에 장수왕은 그의 시종을 박탈하고, 태자인 왕인(王仁)을 인질로 잡아두는 조치를 취하였다.[27] 결국 풍홍은 송(宋)에 사신을 보내 망명을 요청하였고, 이를 접수한 송 태조(劉裕)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송은 왕백구(王白駒)를

22)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장수왕 24년(436년) -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23) 여호규, 2022 앞 논문, 134쪽
24) 백다해, 2016, 앞 논문 231쪽
25) 김병곤, 2011, 『고구려의 평양 천도 기획 시점과 남진』, 고구려발해연구, 39, 87쪽
26)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장수왕 26년(438년) -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27)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장수왕 26년(438년) -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필두로 7천여 명의 병력을 포함한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하여 풍홍을 영접하고자 하였다. 송이 풍홍의 망명을 수용한 데에는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존재했다. 당시 송은 풍홍을 영입함으로써 북위를 공격할 명분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망국의 군주가 송에 귀의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중원 세계의 정통성을 자신들이 계승하고 있다는 위상을 과시하려 했다.[28)]

만약 풍홍이 송으로 탈출하여 전쟁의 명분으로 쓰이게 된다면 고구려와 북위의 관계는 극도로 험악해질 것이 분명했고, 최악의 경우에는 전쟁을 각오해야 했기에, 장수왕은 선수를 쳐서 분쟁의 싹을 잘라버렸다. 송의 사절이 도착하기 전에 손수와 고구를 시켜 풍홍과 그의 자손 10여 명을 죽인 것이다.[29)]

이에 왕백구가 이끄는 송 사절단은 손수와 고구를 습격해 양국 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고구가 전사하고 손수가 포로로 잡혔다. 자칫 분쟁이 격화될 수 있었으나, 고구려가 남·북조간 전쟁의 한복판에 끌려들어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30)] 장수왕은 왕백구와 사절단에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 않고, 그들을 체포한 뒤 송으로 돌려보냈다. 송 태조 또한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고구려가 본 사건에서 송에 대해 비교적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분쟁의 원인 일부가 고구려 측에 있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풍홍은 자발적으로 송에 망명을 요청하였고, 송은 이를 수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송의 사절단이 도착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풍홍과 그의 일족을 살해하였다. 이는 고구려가 사전에 송의 외교적 행위를 무력화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송으로 하여금 군사적 대응의 명분을 확보하게 만들었다. 즉, 도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일정 부분 책임이 고구려 측에 있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장수왕은 고구려가 남북조(南北朝) 간의 군사적 충돌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풍홍 제거를 통해 분쟁의 주요 원인을 사전에 차단했으므로, 이후 상황을 확대할 동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송군의 무력 시위 또한 고구려에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송은 바다를 건너 7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 영내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동 일대에서 군사 행동을 벌였다. 이는 고구려로 하여금 해로를 통한 요동 방면의 위협 가능성을 직시하게 만든 사건이었다.[31)]

Ⅲ. 맺음말

고구려는 중원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단순한 양자 교섭을 넘어서, 각 국가의 군사, 정치, 외교관계, 지정학적 특성 등을 고루 파악, 검토하여 그때마다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적 대응을 할 수 있었다. 또한 필요하다면 실리적이고 때로는 저자세 적인 태도를 통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도 했다.

당시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강국 중 하나였다. 국가적 자존심을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국력이 있었음에도 송과, 북위 양국에 칭신(稱臣)하며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명목상이긴 하지만 두 나라를 상국으로 대접함으로써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고 불필요한 외교적 갈등이나 마찰을 피하고 고구려의 지역 패권을

28) 백다해, 2016, 앞 논문 234쪽
29)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장수왕 26년(438년) -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30) 여호규, 2022 앞 논문, 135쪽
31) 백다해, 2016, 앞 논문 235쪽

국제적으로 승인받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는 상대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방식으로 외교적 마찰을 피하면서도, 실질적 주도권은 유지하려는 균형 감각이 작동한 결과였다. 실제로 북위 등 중원 국가들은 고구려의 독자적인 세력권을 인정하였으며, 책봉호나 관직 부여를 통해 고구려의 위상을 반영하였다.

물론 필요하다면 강경책도 충분히 사용했다. 풍홍과 북연인(人) 들을 북위의 위협에도 호위를 붙여서 망명시켜주거나, 송나라로, 재망명하려던 풍홍을 기습해 죽이는 등 군사적인 행동도 주저하지 않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북위나, 송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여 외교관계의 안정을 도모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역사적으로 외교를 등한시하거나 적성 국가를 과하게 늘려서 파멸한 국가들이 여럿 존재한다. 고구려 또한 그런 길을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장수왕과 고구려 조정은 다원적 국제질서 속에서 현명하고 실리적인 판단을 내린 결과 번영을 구가하게 되었다. 고구려의 사례는 국가 지도자가 추구해야 할 바가 단순한 명분이 아닌 실질적인 평화와 번영임을,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서는 유연한 외교 전략과 냉철한 판단력이 필수적임을 잘 보여준다.

참고 문헌

김병곤, 2011,『고구려의 평양 천도 기획 시점과 남진』,『고구려발해연구』, 39

김진한, 2018,『5世紀 高句麗의 對宋外交 再檢討』,『역사학보』, 237

김철민 2016,『高句麗 長壽王代의 對宋外交와 그 背景』,『韓國史學報』, 63

노태돈, 2012,『광개토왕대의 정복활동과 고구려 세력권의 구성』,『한국고대사연구』, 67

박진숙, 2004,「장수왕대 고구려의 대북위외교와 백제」,『한국고대사연구』 36

백다해, 2016,『5세기 국제정세와 장수왕대 대송관계(對宋關係)의 성격』,『역사와 현실』, 102

백다해, 2023,『'북연 집단'의 이동을 통해 본 430년대 고구려 외교정책』,『선사와 고대』, 73

『삼국사기』 권 제18, 고구려 본기 제6, 장수왕 -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여호규, 2022,『5세기 초·중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고구려의 외교 정책』,『역사와 현실』, 124

정동준, 2023,『북위와 고구려의 사례를 통해 본 책봉의 의미』,『한국사연구』, 202

최일례, 2013,『장수왕대 고구려의 對中外交와 그 動因』,『한국고대사연구』, 71